

• 핵심 전략 레포트 •

안녕하세요. 강한국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제안해주신 각종 아이디어들 모두 정말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퀀트를 처음 접한 분들, 꾸준히 투자해오신 분들 가릴거 없이 정말 다양한 궁금증과 인사이트가 있으시구나 다시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제가 이 레포트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퀀트에 완전히 빠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엉뚱한 생각 같지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의외의 전략이 탄생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좋아보이는데 또 리스크 대비 수익률은 그냥 그럴 수도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구 제안해주세요!
제가 같이 검증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1월 첫번째 핵심 전략 레포트

첫 시작부터 훌륭하다!

지난주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마켓타이밍을 이용한 전략에 대해 특히나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전략들이 많으니 여러분들도 백테스팅 해보세요~



*) 이번 레포트에 포함된 '핵심전략' 부분은 수강생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1월 22일 (수) 라이브에서도 자세히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전략 제안방 참여방법

전략 제안방에서는 여러분의 퀀트 투자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강한국 마스터가 직접 확인하여 '강한국이 대신 해드립니다' 라이브 수업 혹은 '핵심 전략 레포트'에서 풀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어스캠퍼스 로그인 > 나의스터디 > 십일사천국 완전정복 스터디 입장하기 > '강한국이 대신 해드립니다' 탭 > '전략 제안방 접수 시작' 글에 댓글 남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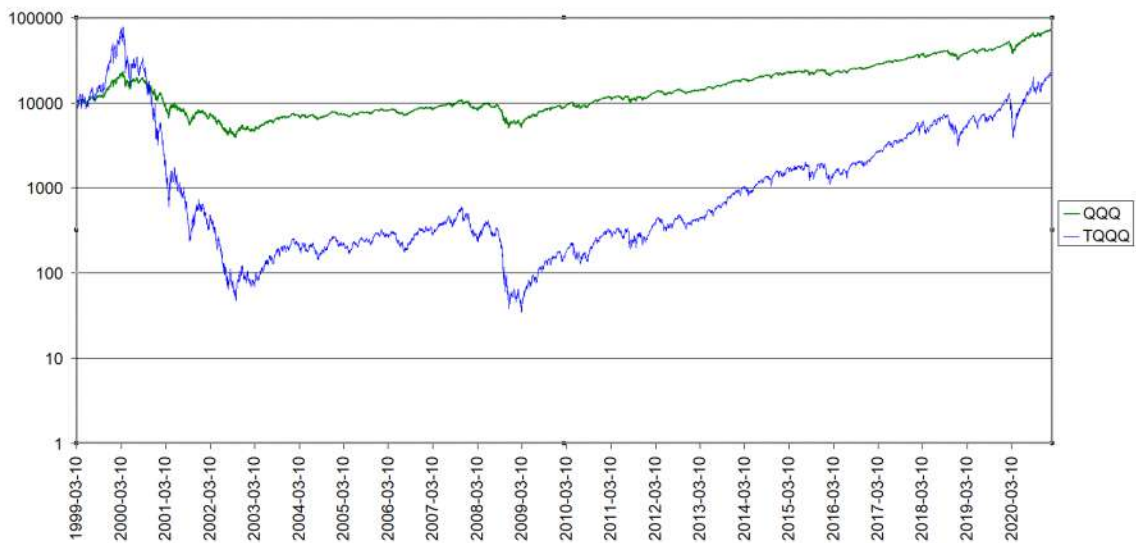
레버리지 ETF 전략



자산배분에서 주식 비중 중에 미국 주식 ETF인 QQQ 대신 3배 레버리지인 TQQQ를 사용하는 전략



ETF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발상입니다. 하지만 자산배분의 중요한 포인트는 MDD(최대손실)을 낮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20%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출처: FIFTIUM INVESTMENT

문제는 나스닥 자체의 MDD가 83%라는 점입니다. 특히 2000년부터 2002년의 구간을 보시면 하락이 매우 컸죠. TQQQ는 2010년에 만들어져서 정확한 백테스팅은 어렵지만 3배 기준으로 백테스트를 해보면 위 그림과 같습니다. 폭락 구간에 TQQQ를 샀으면 99.9% 손실을 봤을 겁니다. (1만원이 6원이 되는거죠)



나스닥이 큰 그림에서는 우상향 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큰 하락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가치투자 타이밍 전략



한국 시장이 저평가 될 때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
혹은 시장이 고평가될 때 상승여력이 높은 저평가 가치주 투자



가치투자를 시장 타이밍에 맞춰서 진행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발상이 좋지만 '코스피 저평가' 라는 것이 주관적이라 매년 '소형 가치주'에 투자하는 전략이 가장 간단하고 명확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유니버스 선택

한국

기본 필터

☒ 금용주 제외
 ☒ 지주사 제외
 ☒ 관리종목 제외
 ☒ 적자기업 제외
 ☒ 적자기업 제외 (년간)

☒ 중국기업 제외
 ☒ PTP 기업 제외
 ☒ 소형주 하위 20%만

전체 선택

가치 팩터 (Price 관련)

☒ 시가총액 ③
 ☒ PER ③
 ☒ PBR ③

☒ PSR ③
 ☒ POR ③
 ☒ PCR ③

☒ PFCR ③
 ☒ PRR ③
 ☒ PGPR ③

소형 가치주를 추출하는 간단한 전략으로 백테스트 해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여 수수료는 0.2%, 월별 리밸런싱 기준으로 CAGR(연평균수익률)은 67.6%, MDD(최대손실)은 -60%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으로 나오네요. 여기에 추가로 재진입 마켓타이밍을 넣어보겠습니다.

가치투자 타이밍 전략



한국 시장이 저평가 될 때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
혹은 시장이 고평가될 때 상승여력이 높은 저평가 가치주 투자

지수 자체의 저평가와 고평가를 평가하기보다는 '소형 가치 전략' 자체의 수익율을 보면서 지금 실행할지 혹은 잠깐 쉬면서 현금을 보유할지 선택하는 방법이 조금 더 명확하게 참고하기 좋겠습니다.

☒ 매크로 마켓 타이밍 ⓘ ☒ 재진입 마켓 타이밍 ⓘ

☒ SMA ⓘ ☐ EMA ⓘ ☐ HMA ⓘ

전략 이동평균선 기간

60 일

5 ~ 200 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상은 퀀터스의 '고급' 기능에 있는 '마켓 타이밍 설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략의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격도를 통해 손절과 재진입을 적용하는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의 60 SMA는 예시일 뿐, 다른 수치로도 직접 실험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재진입 마켓타이밍을 적용하면 CAGR은 58%, MDD는 -26%로 수익율은 10% 정도로 떨어졌지만 MDD는 대단히 떨어진 비교적 안전한 전략으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소형 가치주'에 집중하되 가치투자의 추세추종을 병합하면 더 효과적인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재진입 VS 매크로 전략



십일사+소형주+가치4팩터+성장1팩터(매출총이익)+종가
+마켓타이밍(코스피20일선 95%매도) 전략에서 추가로
코스피 20일을 회복하면 재진입하는 조건도 함께 적용



제안해주신 전략 조합으로 백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CAGR 39%, MDD -19%인 전략으로 보이네요. 수수료와
리밸런싱 주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리밸런싱 설정

리밸런싱 기간

시즈널리티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원하는 리밸런싱 기간을 선택해주세요.

마켓 타이밍 설정

☒ 매크로 마켓 타이밍 ⓘ
 ☒ 재진입 마켓 타이밍 ⓘ

매크로 마켓 타이밍 필터 01

코스피 이격도 (20일)

음(●)

상위 (>)

하위 (<)

범위

95

값

시즈널리티와 마켓 타이밍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위 그림의
수치말고도 다른 숫자나 조합으로 실험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현재 퀴터스에서는 '코스피 마켓타이밍'과 '재진입 마켓타이밍'을 둘 다
동시에 할 수는 없어서 어떤 것이 나올지 백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재진입 VS 매크로 전략



십일사+소형주+가치4팩터+성장1팩터(매출총이익)+종가
+마켓타이밍(코스피20일선 95%매도) 전략에서 추가로
코스피 20일을 회복하면 재진입하는 조건도 함께 적용

아까의 전략은 코스피 이격도(20일)를 기준으로 95%를 손절하는
마켓타이밍이었다면 지금 해볼 백테스트는 지수가 아닌 전략 자체의
이격도를 기준으로 재진입 하는 마켓타이밍을 적용해봤습니다.

마켓 타이밍 설정

☒ 매크로 마켓 타이밍
 ☒ 재진입 마켓 타이밍

☒ SMA
 ☐ EMA
 ☐ HMA

전략 이동평균선 기간

일

5 ~ 200 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재진입 마켓타이밍을 설정해보았더니 CAGR은 29%,
MDD는 -18%로 결과가 추출되었습니다. 아까 코스피 이격도
마켓타이밍을 적용한 전략은 CAGR이 39%, MDD가 -19% 였죠.

이 전략에서는 코스피를 활용한 매크로 마켓 타이밍 전략의 승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 다양한
수치로 직접 백테스트를 하며 맞추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켓타이밍도 매크로 기준인지, 전략 기준인지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백테스트를 많이 해보세요!

추가 전략 제안 내용



재진입 마켓타이밍을 적용하여 개별 종목을 매도하게 된 경우, 전체 또는 일부 금액을 코스닥 인버스를 매수하는 전략 백테스트

해당 전략은 아쉽게도 아직 퀀터스에서 구현과 백테스트가 불가능합니다. 개별 종목을 추출하는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에 따라서 편차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는 백테스트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식 자산배분은 모의 포트폴리오와 비슷하게 자산배분을 하되, 동적 자산배분은 개별 소형주로 한다면 분기 리밸런싱과 월별 리밸런싱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 확인

정적자산배분의 경우, 다양한 자산을 담고 있기 때문에 분기나 반기 정도 리밸런싱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는 '밴드 리밸런싱 5%'를 백테스트에 적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주 동적자산배분은 변동성이 높기에 월별 리밸런싱이 보통입니다.



손매매에서 개별 종목을 확인해서 이평선을 선별하여 매매하면 자동매매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

손매매와 자동매매는 동일한 조건으로 매매한다면 동일한 수익률과 MDD가 나오겠지만 한 달만 해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매일 시장을 주시하는 것도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사고 팔아야 할 시점에 이런 저런 이유로 멈칫하게 되어 실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때문에 실제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전략 제안 내용



자산을 나눠서 일부는 원화로 주식투자, 일부는 달러로 주식투자

달러와 원화를 나눠서 투자하는 것은 매우 권장할 만합니다. MDD를 낮춰주는 방법으로 환율로 인한 자산배분 효과를볼 수 있습니다.
(할수있다알고투자 1059번 영상을보시면 자세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10가지 팩터에서 60일 이평선 마켓타이밍 말고, 윌리엄 오닐의 '강도지수'를 추가하는 전략 (강도지수 + RS지수 활용)

이 부분은 쿼터스에서 실험 해보았으나 크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냥 RS가 높은 식은 수익이 별로였고, 오닐이나 미너비는 RS가 높은주식중에 차트 패턴과 어닝 성장 및 가속, 속한 산업의 RS도 함께 고려하여 투자하고 여기에 손절과 익절까지 가미해서 '좋은 RS 주식'과 '나쁜 RS 주식'을 구분하는것으로 추측됩니다.
참고로 오닐과 미너비니가 언급한 가장 훌륭한 팩터인 '매출 또는 수익의 가속화'의 경우 쿼터스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180일 이동 평균선을 적용한 자산배분 전략에서 월별 리밸런싱이 아닌 일별 리밸런싱을 한다면

일별 리밸런싱의 경우 거래가 잦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나 MDD 면에서 향상된 전략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전략 제안 내용



모의 포트폴리오를 통한 MDD와 수익률 확인
또한 동적자산배분 수익률을 '주식으로 돈벌다' 책의 계산식으로
계산할시 똑같은 수익률이 나오는지 확인

모의 포트폴리오의 연복리수익은 15%, MDD는 10% 정도로 이해하시면
적절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계산식으로 직접 계산하셔도 무난하지만
실수하는 사례가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제 결과와 비교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채권과 금 ETF를 통해 백테스트를 진행한다면 실제 자동매매에서
CAGR과 MDD가 다르게 나올 가능성

채권과 금 ETF는 생긴지 얼마되지 않아 ETF로 백테스트를 하면 기간이
짧아져서 신뢰하기 어려운 자료가 추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2022년이 자산배분이 잘 먹히지 않았던 때라 최근 수익이 특히나 저조할
수 있겠습니다. 20년 백테스트 결과가 훨씬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일텐데요,
20년 동안 '망하는 구간'이 1~2년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자주 있습니다.
2022년이 그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인 전략의 수익과
MDD는 20년 백테스트 결과에 수렴할 가능성이 2022년 손실이 지속
유지될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배당주를 포함하여 자산배분 VS 일반 주식을 통한 자산배분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주식 비중에서 배당주를 활용했을 때 MDD가 크게
나아지지도, 수익이 뚜렷하게 높아지진 않습니다. 배당 받는 날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전략 제안 내용



50개 종목 추출 후 6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 20개를 매수, 매일 확인하여 6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면 해당 종목 매도, 다시 종목을 추출해서 이평선 위에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전략

이동평균선 전략을 손매매로 하는 것은 여러 이유로 어렵지만, 해당 전략이 손매매로 가능하다고 했을 때도 좋은 전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주가 이동평균선을 하회할 때 매도하는 것보다는 전략 자체가 이동평균선을 하회할 때 모든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수익률 상승에 더 좋습니다.



자산의 50%: VTI 12%, VEA 12%, VWO 12%, EDV 18%, LTPZ 18%, VCLT 7%, EMLC 7%, IAU 7%, PDBC 7%
자산의 49% : 동적자산배분 중 변형듀얼모멘트 50%, 공격형 BAA 50%
자산의 1% : 비트코인

정확한 백테스트는 어려우나 해당 정적자산배분은 김단테(김동주)님 책에 등장하는 자산배분과 비슷해보입니다. 이 성과는 김성일 작가님 책에 서술이 되어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미국에만 투자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동적자산배분의 경우 연복리 10% 이상, MDD 10% 이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1%(최대 5%) 정도는 비트코인 같은 '모 아니면 도'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리밸런싱 이해하기



리밸런싱 이해하기란?

퀀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을 왜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내드리기 위해 강한국 마스터가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1. 리밸런싱을 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리밸런싱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산 비중 재조정입니다. 우리가 자산배분을 하면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자산은 오르고 어떤 자산은 내려서 비중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표 비중은 주식 50%, 채권 50% 였는데 시간이 흘러서 주식이 많이 오르고 채권은 하락하면 전체비중이 주식 70% 채권 30%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 비중을 맞추기 위해 주식을 좀 팔고 채권을 사서 다시 각각 50%로 맞추는 것이 리밸런싱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맞는 종목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성장주를 사는 것이 목표라면 최근 분기 매출이나 이익 성장률이 높은 종목을 사야 하는데, 한 분기 보고서가 나왔는데 성장이 꺾이면 당연히 그 주식을 팔고 다른 성장주로 갈아타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리밸런싱을 꼭 월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별주 전략 같은 경우는 많은 전략들의 월별 리밸런싱 수익률이 분기 반기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퀀트 입문자분들은 리밸런싱 주기도 바뀌가며 백테스팅을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리밸런싱 이해하기

2. 리밸런싱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있을까?

매수 주식	1월1일 매수 금액(만 원)	2월 1일 평가 금액(만 원)
A	1,000	900
B	1,000	1,100
C	1,000	1,060
합계	3,000	3,060

위 표처럼 3,000만원으로 3개의 주식을 매수하는 월별 리밸런싱 개별주 전략을 실행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가상 전략에서는 'A', 'B', 'C' 3가지 종목에 고르게 분배하여 투자하고 매월 1일을 리밸런싱 날짜로 설정을 했다고 합시다. 위 표에서 1월 1일에 매수했던 금액과 2월 1일의 평가금액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한 2월 1일에는 투자할 종목도 변경해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총 합계도 3,060만원으로 60만원이 증가하였네요.

매수 주식	2월 1일 리밸런싱 전 (만 원)	2월 1일 리밸런싱 이후 (만 원)
A	900	0
B	1,100	1,020
C	1,060	0
D	0	1,020
E	0	1,020
합계	3,060	3,060

2월 1일에 종목을 다시 뽑았더니 'B', 'D', 'E'를 보유하라고 합니다. 자산이 3,000만원에서 3,060만원으로 늘었으니 각 주식에 1,020만원씩 배분하면 되겠죠. B 주식은 보유 금액이 1,100만원이니 80만원을 매도해서 1,020만원을 만듭니다. 'A'와 'C'는 더이상 필요없으니 전부 팔고 그 금액으로 'D'와 'E'를 1,020만원씩 매수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리밸런싱을 적용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핵심 전략 레포트 어떠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보면서 새로운 전략에 대한 의지가 불타올랐네요. 몇개는 제가 더 연구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성향에 맞는 전략으로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테일한 비중이나 팩터는 직접 백테스트 해서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2의 김슬기 전략, 어렵지 않습니다!

또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았는데요, 이걸 11월 22일 수요일 저녁 라이브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핵심 전략 레포트는 12월 4일 월요일에 발행됩니다.